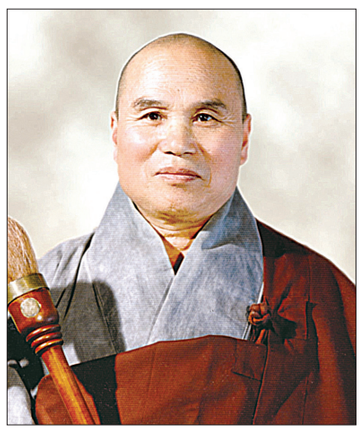
한국불교 근현대 선지식 추모·선양 행사 '눈길'

'선림고경총서' 무료 공개 성철 스님 선사상 알린다

백련불교문화재단, 성철 스님 열반 30주기 추모행사

총서 全37권 E-Book 무료 공개
10월14일 30주년 학술대회 개최
성철 스님 사상·수행 면면 조명
문도회 등 4일40야 4만8천배 기도



조계종 제6·7대 종정예하셨던 근현대 대표 선지식 성철 대종사(1912~1993, 사진)의 열반 30주년을 맞아 스님의 수행과 사상을 선양하기 위한 다양한 추모 행사가 열린다.

백련불교문화재단(이사장 원택)은 9월 25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성철 스님의 열반 30주기를 맞아 스님께서 현창하고자 했던 선문(禪門)의 정법을 널리 펴기 위해 〈선림고경총서〉 37권 전권을 전자책 형태로 무료로 배포한다"고 밝혔다.

'선림고경총서'는 1984년부터 번역자를 탐문해 번역을 시작했으며, 1987년 가을 선문의 소의 경전에 해당하는 어록을 한 권으로 묶은 〈선림보전〉이 출간됐다. 이후 1993년 〈벽암록〉 상·중·하 3권을 발행함으로써 '선림고경총서' 전 37권이 완간됐다.

현재도 선 수행자와 연구가들이 꾸준히 찾는 '선림고경총서'는 주문자 제작 서비스(POD) 형태로 유통되고 있다. 백련불교문화재단과 성철 스님 문도회는 선의 정법을 현창하고자 했던 성철 스님의 뜻을 기리기 위해 스님의 열반일인 11월 3일에 맞춰 '선림고경총서'의 무료 공개를 결정했다.

백련불교문화재단 이사장 원택 스님은 "'선림고경총서'는 선의 바른길을 현창하고자 했던 은사스님의 정신과 30년에 걸친 추모사업의 근간이었다"면서 "은사스님의 원력으로 탄생한 '선림고경총서'를 전자책으로 만들어 대중들에게 무료 공개·배포하려 한다. 이제 세계 어디서라도 편리하게 '선림고경총서'를 열람해 조계(曹溪)의 맑은 물을 맛보는 계기가 되고, 우리 각자가 지니고 있는 '고경(古鏡)'을 밝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기대했다.

서재영 성철사상연구원장은 "이번에 공개되는 〈선림고경총서〉는 성철 넷 홈페이지에 접속해 열람할 수도 있으며, 각각의 책에 대한 링크를 SNS를 통해 공유해 개인용 컴퓨터나 스마트폰 등을 통해 열람하거나 인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열반 30주기를 맞아 스님의 수행과 사상을 조명하기 위한 학술 세미나도 마련됐다. 동아시아불교문화학회(회장 권기현)와 백련불교문화재단 부설 성철사상연구원은 오는 10월 14일 오전 10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에서 '성철스님의 불교 인식과 현대적 적용'을 주제로 '성철 스님 열반 30주기 추모 학술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날 학술세미나에는 △박태원 영산대 교수의 '퇴옹은 왜 돈오점수를 비판했을까' △신규탁 연세대 교수의 '성철 선사의 선 문헌 속에 인용된 경전과 어록' △김광식 동국대 교수의 '성철 법맥의 재인식' △강경구 동의대 교수의 '〈선문정로〉 문장 인용을 통해 본 성철선의 특징' △김응철 중앙승가대 교수의 '성철 스님의 수좌형 리더십의 사회적 영향력 분석' △김명우 동아대 교수의 '〈백일법문〉에 나타난 퇴옹성철의 팔식설 고찰'이 각각 발표될 예정이다.

수행을 통해 성철 스님의 뜻을 기리는 법회들도 잇달아 진행된다. 성철 스님 문도회와 해인사 백련암은 10월 28일 오전 10시 성철 대종사 사리탑전에서 '성철 대종사 열반 30주기 3000배 정진'을 진행한다. 10월 30일부터 11월 3일까지 백련암 고심원에서 '성철 대종사 열반 30주기 추모 4일 4야 4만8000배 참회법회'가 봉행된다. 11월 3일 오전 9시 성철 대종사 사리탑에서는 열반 30주기 헌공다례가, 오전 10시 해인사 대적광전에서는 열반 30주기 추모다례가 봉행될 예정이다. **신중일 기자**

불교 대중·세계화 구산 스님 수행·전법 등 면면을 살피다

10월 13~19일 보조사상硏·송광사, 국제학술대회 등

구산 스님 간화선 사상부터
불교 세계화까지 조명 나서
덴마크 제자들 참여해 '눈길'
외국인 제자 인연담 발간도



조계총림 송광사의 초대 방장이자, 불교 대중화·세계화를 위해 평생을 살았던 근현대 선지식 구산 스님(1909~1983, 사진)의 열반 40주기를 맞아 스님의 사상과 삶 전반을 조명하는 국제학술대회와 다양한 추모·선양행사가 열린다.

조계총림 송광사(주지 자공)과 보조사상연구원(원장 이병욱)은 10월 13일부터 19일까지 6박 7일 간 국제학술대회·심포지엄, 구산 스님 수행처 방문, 효봉·구산 스님 공동 추모재 등 추모 행사를 개최한다.

추모 행사의 시작은 보조사상연구원이 연다. 보조사상연구원은 9시 30분 서울 종로 법련사에서 '구산 스님 열반 40주기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한다.

'한국불교 대중화에 끼친 구산 스님의 영향'을 주제로 열리는 이번 국제학술대회는 구산 스님의 간화선 사상부터 제2정혜결사, 불교 대중화·세계화 등 스님의 면면을 조명하는 연구논문들이 발표된다. 특히, 구산 스님에게 혜명(慧明)이라는 법명을 받고 송광사에서 간화선을 수행했던 로버트 버스웰 UCLA 교수와 덴마크 제자들이 직접 참가해 스님의 삶과 사상을 조명하는 점도 눈길을 끈다.

이날 국제학술대회에서는 각 연구 주제별로 총 7개의 연구논문이 발표된다. 특히 버스웰 교수는 '구산의 가르침의 유산으로서 지눌사상'을 주제로 구산 스님을 통해 접한 보조지눌의 〈법집별행록절요병입사기〉를 중심으로 한국 선사상의 흐름을 서술한다. 버스웰 교수는 지눌의 〈법집별행록절요병입사기〉가 전근대의 동아시아 불교 문헌에서 수증론으로 가장 철저하게 검토하고 있는 사례에 속하며 '온건한 돈오주의'와 '급진적 돈오주의'의 궁극적인 융합을 보여준다고 평가한다.

외국인 제자들의 발표들은 구산 스님의 한국불교 세계화 원력을 알 수 있어 중요하다. '스승으로서 구산-설법방식'을 발표하는 헨릭 소렌센 독일 보훔대학 교수는 구산 스님이 가르침에 대해 전통적 선(禪)의 방식을 지키면서도 동시에 외국인 제자에게 부합하는 방식으로 전달되었다고 주장한다.

도리트 바그너 덴마크 코펜하겐대학 교수는 '구산의 덴마크에서의 전통적 선(禪)의 선양-일심 그리고 다양한 문화'를 통해 1972·1980·1982년에 이뤄진 구산 스님의 덴마크 방문에서 스님이 어떻게 설법했으며, 스님의 방문에 덴마크 불교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조명한다.

이와 함께 △화두참구에 대한 내러티브적 접근(인경 스님 명상상담평생교육원장) △구산수련의 제2정혜결사 활동과 의의(김방룡 충남대 교수) △구산수련의 '불교의 대중화'와 '한국불교의 세계화' 활동과 그 사상적 근거(이병욱 고려대 교수) △현대 대한불교조계종 설립과 구산의 역할(김경집 동국대 교수) 등도 발표된다. 특히, 김경집 교수는 구산 스님이 1969년 5월 17일 총무원에 제출한 '조계총림 창립 취지서'를 학술대회에서 처음 공개할 예정이다.

국제학술대회에 이후에는 순천 송광사로 이동해 괘불재(10월 14일), 금강산림법회 회향식(10월 15일), 효봉·구산 스님 공동 추모재 및 구산 스님 열반 40주기 국제심포지엄(10월 16일), 구산 스님 수행처 방문(10월 17~18일) 등의 추모행사를 진행한다.

한편, 구산 스님과 외국인 제자들의 인연 이야기를 수록한 〈구산 스님과의 인연담〉도 10월 10일 출판된다.

신중일 기자 motp79@hyunbul.com

"불교명상 생활화 이끌 지도자 양성"

명상지도자협, 명상아카데미 개강
10월 11일부터 온라인…총 10강
12월 16일, 명상지도자 워크숍도

한국명상지도자협회(이사장 혜거)가 '제14기 명상아카데미 대강좌'를 개강한다. 총 10강으로 구성된 강좌는 기초반과 심화반으로 나눠 온라인으로 운영된다. 기초반은 10월 11일부터 12월 13일까지 매주 수요일에, 심화반은 10월 14일부터 12월 23일까지 매주 토요일에 진행된다. 강의 시간은 오후 2시~5시 30분이며, 실시간 화상강의(ZOOM)로 참여하면 된다.

명상아카데미 대강좌는 최일선에서 불교명상을 개발·보급하고 있는 대표 명상지도자 20명이 직접 강의한다. 한국명상지도자협회 이사장 혜거 스님을 비롯해 행복마을 이사장 용타·가피를 나누는 사람들 대표 적경·한국명상심리상담교육원장 인경·보리마을자비선명상원 선원장 지운·행불선원 선원장 월호·자비명상 대표 마가·은유와 마음연구소 대표 명법·참선원 주지 무애·조계종 포교원장 선업 스님 등이 교수진으로 나선다. 강좌에서는 불교 초기경전을 중심으로 하는 남방 전통의 위빠사나, 사마타, 자비명상은 물론 동사섭, 가피명상, 자비다선 차명상, 행복수업 등 대승명상을 안내한다.

이와 함께 한국명상지도자협회는 12월 16일에는 '한국 명상의 대중화, 생활화 사례와 과제 그리고 전망'이라는 주제로 제3차 한국명상지도자 워크숍을 개최한다. **김내영 기자**

'선명상' 수좌들에게 직접 배워볼까

한국참선지도자協, 韓명상총협회
'제9기 참선아카데미 명상대강좌'
10월 6~9일 문경세계명상마을서

한국참선지도자협회(이사장 의정)와 사단법인 한국명상총협회(회장 각산)는 공동으로 '제9기 참선아카데미 명상대강좌'를 10월 6일부터 9일까지 3박 4일간 문경 봉암사 세계명상마을에게 개최한다.

4일 간의 강좌는 '명상의 완성은 간화선이다'라는 주제로 한국참선지도자협회 이사장 의정 스님의 법문으로 시작되며 △전국선원수좌회 의장 성산 스님의 '참선수행을 통한 자기혁신' 문경 봉암사 세계명상마을 선원장 각산 스님의 '초기불교와 간화선 통합수행' △만연사 선원장 나월 스님의 '간화선 화두의 실제와 이해' △30년 선승 혜우 스님의 '마음 작용과 사성제' △정신건강의학 전문의 전현수 박사의 '불교명상 심리치료' 등 명상 대가들의 강의와 선승들이 직접 주관하는 실참 및 질의응답이 진행된다.

한국명상총협회장 각산 스님은 "이번 강좌 통해 참가자들은 전문적인 역량을 갖춰 부처님 법을 널리 알릴 수 있는 명실상부한 명상지도자가 될 것"이라며 "명상하는 법과 선문답, 심리치료를 통해 스스로를 소외시켜가는 현대인의 마음을 밝힐 수 있으며, 근본적으로는 존재로부터의 자유를 성취하는 기회를 갖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문경세계명상마을(010-6234-2946), 참선지도자협회(010-7705-0804) **신중일 기자**

